

광주 문화재단 무엇을 할 것인가

美 선진 예술재단 연쇄 화상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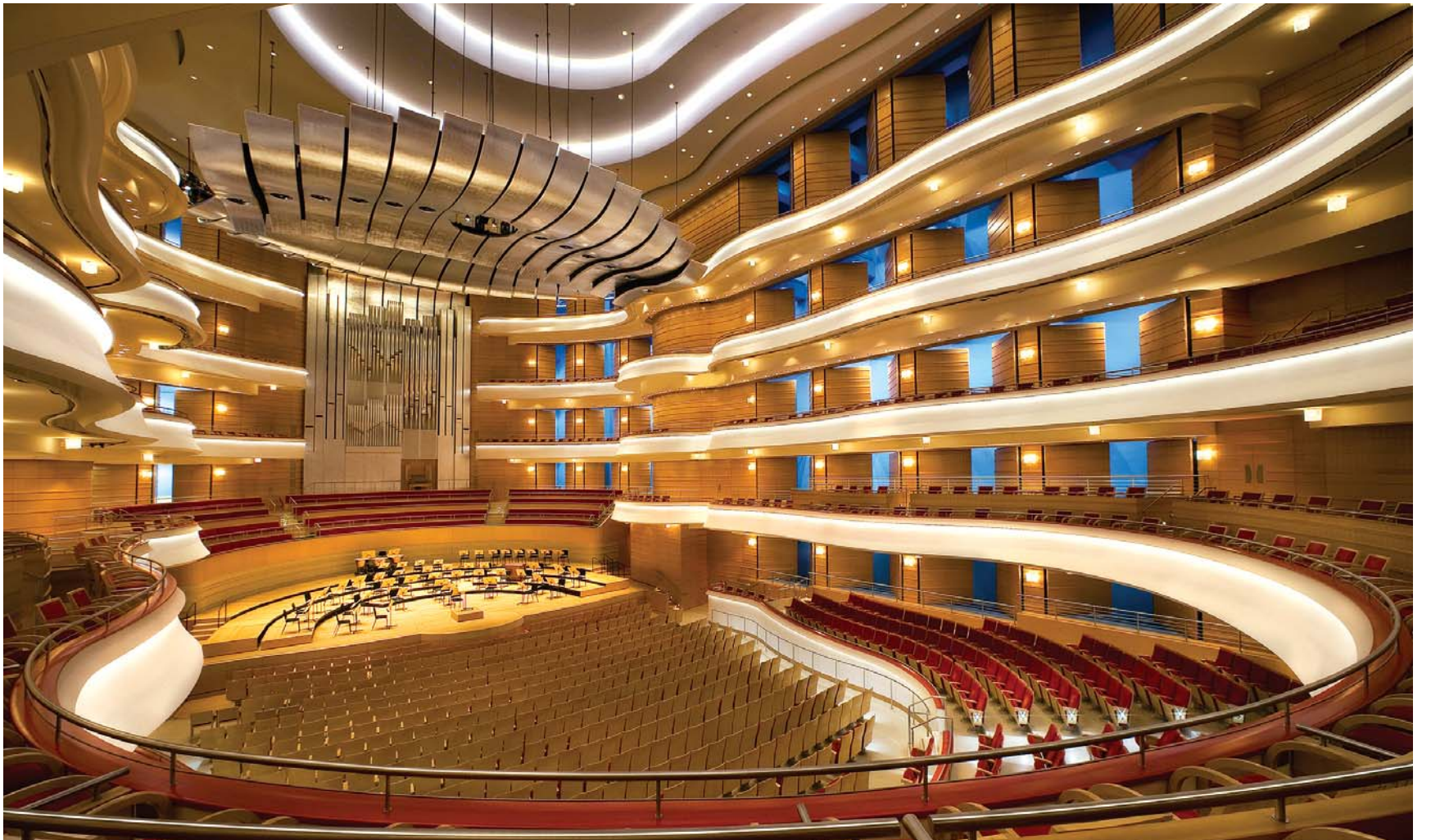
미 캘리포니아주 남부에 위치한 오렌지 카운티(Orange County). 불과 30년 전만 해도 야자수가 늘어선 해변과 파도타기, 놀이공원 디즈니 랜드 등으로 유명한 관광지였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오렌지 카운티는 미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새롭게 변신중이다. 그리고 그 중심엔 지난 1986년 개관한 오렌지 카운티 공연예술센터(Orange County Performing Art Center·오렌지 카운티 센터)가 있다. 동부에 워싱턴 케네디센터가 있다면 서부엔 오렌지 카운티센터가 있다고 할 정도로 미국의 문화예술계를 주도해가고 있는 양대축이다. 지난 2006년 4월부터 제4대 수장으로 취임해 오렌지 카운티 센터를 이끌고 있는 테리 드와이어(Terry Dwyer)로 부터 문화재단의 운영노하우를 들어왔다.

2 테리 드와이어 오렌지 카운티 센터 대표

박진현 문화예술 선임기자

-오렌지 카운티 센터는 케네디센터나 링컨센터에 비해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는데.
-▲이번 화상인터뷰를 계기로 유명해졌으면 한다 (웃음). 오렌지 카운티센터는 연간 예산이 4200만 달러(한화 500억 상당)에 달하는 미 서부 제1의 예술재단이다.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무대와 음

-근래 예술경영이 새로운 화두다. 오렌지 카운티 센터의 관객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들려준다면.
-▲우리 센터는 예산의 대부분을 민간이나 기업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연간 4200만달러의 예산 중 개인·기업의 기부가 1100만달러, 공연수익이 2500만 달러, 센터 기금(5000만달러)이자 300만 달러다. 기부는 경기영향에 민감한 만큼 '불안정한' 면이 있지만 우리는 최고 수준의 작품을 기획해 개인이나 기업이 자연



오렌지 카운티 공연예술센터의 르네 & 헨리 세거스트롬 콘서트홀의 내부 모습.

(사진촬영·크리스 코스티)

“문화재단의 성공 열쇠는 지속적인 관객 창출”

문화체험·예술수업 확대

지역민 욕구 충족시켜야

향시설을 갖춘 콘서트홀에서 클래식, 재즈, 뮤지컬,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이 펼쳐진다. 우리 센터에서 기획한 뮤지컬이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18주동안 공연된 적도 있다.

-그렇다면 오렌지 카운티 센터가 지역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대단하겠나.

▲물론이다. 서부를 대표하는 예술재단이지만 일차적으로 지역사회와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오렌지 카운티센터는 지역민들의 삶을 창의적이고 윤택하게 가꾸는 '문화의 요람'을 기치로 내걸고 출발했다. 때문에 우리가 무대에 올리는 '작품'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가치다. 매년 40~50만 명의 학생들이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데 센터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말해준다.

-오렌지 카운티 센터의 대표로 취임한 후 가장 역점을 둔 것은.

▲글쎄... '가장'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센터의 설립취지(artistic mission)를 실현하려면 양질의 공연, 관객창출, 교육 등 여러 요소들이 튼튼하게 맞춰져야 하기 때문이다. (굳이 꼽는다면) 취임과 동시에 지역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작품들을 확대하고 새로운 관객을 개발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오렌지 카운티는 다양한 인종과 배경을 지니고 있어 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세분화된 기획력이 필요한 곳이다. 자유로운 성향을 지닌 젊은 관객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실험적인 작품들을 시도했다.



지난 11일 광주아메리칸 코너에서 열린 화상인터뷰 모습. 박진현 선임기자, 토마스 언더우드 주한미국대사관 지역총괄 담당관.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스럽게 지갑을 열도록 유도한다. 즉, 자신들의 기부가 양질의 작품을 만드는 밑거름으로 쓰여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예술적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이다. 기부는 재단의 독립성과 작품성을 지켜준다는 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재원(財源)이다.

-최근 광주 문화예술계를 이끌어갈 광주문화재단이 창설됐다. 예술재단이 성공하기 위해선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먼저 축하인사를 전하고 싶다. 문화재단은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지역민들의 삶의 수준을 끌어 올리는 사회적 미션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수익성에 급급해 예술적 질이 떨어지는 작품들을 양산한다면 예술재단의 본분을 잃게 된다. 또한 새로운 관객들을 공연장으로 불러들이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렌지 카운티센터는 중장기 관객창출플랜을 세워 미래의 문화예호가들을 발굴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단거적으로 '찾아가는

공연'이나 무료공연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의 화교와 연계해 교사들이 센터의 작품으로 예술수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 장기전략으로 당장 내일 공연장을 찾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문화체험의 장을 제공해 먼 훗날 가족들과 함께 클래식을 즐기는 청소년들을 길러낸다. 세 살 꼬마가 여든살의 문화예호가로 성장하도록 하는 지속적인 관객창출은 문화재단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다.

-광주문화재단은 매년 가을 국제공연예술제를 개최한다. 광주와 교류할 의향은.

▲오렌지 카운티센터는 다른 나라 예술단체들과의 교류에 관심이 많다. 특히 한국의 문화도시로 불리는 광주에서 공연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멋진 일이다. 광주문화재단과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고 싶다. 국제적인 협력과 교류는 공연예술계의 새로운 화두다.

예술센터 영입대상 1순위 문화 CEO

■ 테리 드와이어는

탁월한 기획력과 리더십으로 미국의 수많은 예술센터들이 영입대상 1순위로 꼽고 있는 문화CEO다. 25년 동안 펀드레이징과 관객 창출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뛰어난 업적을 자랑한다.

지난 2006년 오렌지 카운티 센터에 입성하기 전까지 토니상을 수상한 휴스턴 앨리 극장(Alley Theatre), 샌디에고 라호야 극장,

뉴욕 오프 브로드웨이의 서클 레퍼토리 컴퍼니 등의 디렉터로 명성을 떨쳤다.

특히 지난 1992년 만성 작자에 시달리던 라호야 극장을 취임 1년 만에 흑자로 전환시키는 등 뛰어난 경영수완을 발휘, 13년 동안 라호야 극장을 이끌었다.

예일대 드라마 스쿨 석사 출신으로 미국 연방예술기금(NEA), 샌디에고 예술정책 위원회 등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1986년 개관 순수 민간 기부 공연장

■ 오렌지 카운티 센터는

세계적인 건축가 세자르 펠리가 설계한 물결치는 듯한 독특한 유리외벽 건물은 오렌지 카운티 센터의 상징이다.

지난 1986년 문을 연 오렌지 카운티 센터는 퍼시픽 심포니, 오렌지 카운티 필하모니 소사이어티, 퍼시픽 코럴 합창단 등 3개의 상주 단체를 거느리고 있다. 브로드웨

이소, 클래식, 재즈, 댄스 등 뛰어난 작품들이 3000석의 세거스트롬 홀(Segerstrom Hall), 2000석의 르네 & 헨리 세거스트롬 콘서트홀, 500석의 다목적 사무엘라 극장에서 연중 공연된다. 오렌지 카운티 센터는 1970년대 농장과 부동산 등으로 부를 일군 스웨덴 출신의 이민자인 헨리 세거스트롬이 50여억에 이르는 부지와 건축비 4천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세상에

나왔다.

미 서부의 문화오아시스를 그렸던 세거스트롬의 꿈은 지난 2006년 최첨단 음향시설을 갖춘 르네 & 헨리 세거스트롬 콘서트홀 증축과 함께 실현됐다. 미 정부의 보조 없이 순수 민간 기부로 공연장을 건립한 것은 오렌지 카운티 센터가 처음이다. 당시 개관 기념공연에는 마에스트로 주빈 메타와 플레시도 도밍고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참가했다. 6주동안 계속된 기념주간에는 매일 1만 여명의 관객들이 공연장을 찾아 수준높은 무대를 만끽했다.

조선대미술관 '동문 아트페어' 연다

황영성 등 작가 126명 참여, 17일~2월18일

본관에 9월 '김보현·실비아 올드 미술관' 개관

조선대미술관(박상호)이 '동문 아트페어'를 열고, 본관에 '김보현·실비아 올드 미술관'을 건립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지난 1989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대학 미술관인 조선대미술관은 오는 17일~2월18일까지 학교 출신 작가 126명의 작품을 시중 거리가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동문 아트페어를 연다.

참여작가의 면면도 화려하다. 강남구·강동권·김영태·김용안·김용안·김익모·김일권·류재용·박구환·오건탁·

임병중·정상섭·정승규·정순이·조규일·조유성·한희원·황영성씨 등 서양 화가와 강요상·김대원·김종경·조선아씨 등 한국화가 76명이 참여한다.

또 강상규·고근호·박광구·오혜경·이이남·조광석·김광길·박재연·서경서·오상문·정예금씨 등 50명의 작가들이 조각과 공예, 미디어아트를 선보인다.

출품작 대부분은 200여 만원에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금은 동문작가와 미래 재학생들의 창작 지원을 위해 쓰인다.

조선대미술관은 또 4000만원을 들여 국내외 미술계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주는 홈페이지도 구축한다. 홈페이지에는 동문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종합하고 지역 작가의 전시 소식 등을 전해준다. 또 해외 유명 작가들의 작업도 소개한다.

조선대 미술대학 1호 교수였던 김보현(93) 화백의 미술관도 오는 9월 이번 문을 연다. 조선대미술관은 4억원을 들여 본관 건물 1층에 430㎡ 크기의 전시장을 갖춘 '김보현·실비아 올드 미술관'을 건립하고 있다. 김화백은 지난 1955년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 교환교수로 가게 되면서 미국에 정착했으며 그의 아내 실비아 올드는 그와 함께



황영성 작 '가죽 이야기'

작업을 한 미국 작가다. 김화백은 조선대학교에 지금까지 307점의 작품을 기증했고, 미술관에는 이들 기증작을 전시한다. 미술관은 또 '김보현·실비아 올드 미술관' 개관에 맞춰 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김보현 화백의 화집과 연구

논문집도 함께 펴낼 계획이다. 박상호 관장은 "단순히 전시회만 여는 것이 아니라 지역 대표 미술대학으로서 미술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펄클레식' 한국어판 100권째 나왔다

동서양의 다양한 고전을 소개해온 '펄클레식' 시리즈 한국어판 100권째가 출간됐다.

펄클레식코리아는 "100권 출간 특별판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펴내면서 지금까지 총 88종 100권을 출간하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에서 펄클레식 시리즈가 나온지 3년만이다.

영국의 '펄클레식' 시리즈는 1946년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천400여 종의 문학과 인문사회과학 명저를 출간했다. 출판그룹 ㈜웅진씽크빅이 펄클레식과 함께 내놓은 한국어판은 2008년 레프 톨스토이의 '크로이체르 소나타'를 시작으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등 영미문학에서 '홍길동전'과 '금오신화' 등 한국 고전까지 다양한 문

학 작품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자유론' '시학'과 같은 인문사회학 명저,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와 '오페라의 유령' 등 영화와 뮤지컬 원작들로 다양성을 더했다. /연합뉴스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2. 27까지